

벼 병해충 확산 막는다...신속 방제 현장 기술 지원

- 김병석 국립식량과학원장, 29일 전북 임실서 벼 생육 현장 점검
- 도열병·벼멸구 등 적기 방제로 피해 최소화...예찰 강화 당부

※ 때와 곳: 2026. 7. 29.(수) 08:30~,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식량과학원 김병석 원장은 7월 29일 전북 임실군 성수면의 벼 재배 농가를 찾아 생육 상황과 병해충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병해충의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기술 지원에 나섰다.

올해 벼 도열병은 평년보다 10일가량 늦은 7월 1일 경기도 여주에서 첫 발생이 확인된 이후 현재 경남북, 전남, 강원 등 전국적으로 3,783ha에 걸쳐 발생함에 따라 이삭패기(출수기) 전 선제적 예방과 발생 초기 신속한 방제를 통해 이삭도열병으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실 지역은 2023년에 이삭도열병(18.6ha), 깨씨무늬병(65.2ha), 흑명나방(428.1ha)이 많이 발생했고, 2024년에는 벼멸구(15.5ha) 피해, 2025년에는 깨씨무늬병(14.9ha)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임실군을 비롯한 전북지역 벼 재배포장에서 병해충 발생은 미미하나, 예방적 차원에서 1차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2·3차 방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식량과학원의 벼멸구 국내 유입예측 프로그램 조사 결과, 올해 첫 비재는 지난해보다 14일 늦은 6월 19일에 확인됐다. 벼멸구는 발생 시 수량 감소 피해가 나타날 수 있어 초기 예찰과 적기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예찰 시 벼대 아래쪽을 면밀히 살피고, 적기 방제를 위해 등록된 적용약제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병해충 전문가로 구성된 ‘농작물 병해충 중앙 예찰단’을 편성하여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합동 예찰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벼 관련 신기술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53개 시군 80개 사업단지와 협력하여 병해충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를 위한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김병석 원장은 “벼 병해충은 조기 발견과 신속한 방제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병해충 발생 시 등록 약제를 활용해 적기에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효율적 방제를 위한 현장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병해충 방제 현장 방문 계획(안)

담당 부서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책임자	과 장	채의석 (063-238-5200)
		담당자	연구관	김현주 (063-238-5210)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모든것  농사호				

붙임

병해충 방제 현장 방문 계획(안)

□ 목 적

- 벼 도열병, 멸구 등 병해충 방제 현장점검 및 향후 신속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 수요 파악

□ 방문개요

- (일시) 2026. 7. 29.(수), 08:30~10:10
- (장소)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일대
- (내용) 벼 병해충 방제 현장 확인 및 피해 예방 철저 당부
 - * 병해충 신속 방제 실시, 생육 후기 작황 관리 등 기술지원
 - * 공동·개별방제: (도) 3~4회, 97,000ha, ~9월/(시군) 3회, 9,900ha, ~8월
- (수행) 채의석 기술지원과장, 손지영 작물환경과장
 - * (현장대기) 기술지원과 전재범 연구사, 전북도원 최준열 원장, 전북도원 정동인 팀장, 임실군수 한득수, 임실센터 천소영 소장·송기중 기보과장·김은하 팀장

□ 세부일정

시 간	분	내 용	비 고
07:50~08:30	40	◦ 이 동(식량원→임실군)	* 이동 45km
08:30~09:30	60	◦ 벼 공동방제 현장 방문 * 전북 임실군 성수면 임진로 213	* 성수면사무소 집결 김은하 팀장 (010-9667-0960)
09:30~10:10	40	◦ 귀 청(임실군 → 식량원)	* 이동 45km